



##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 【결정사안】

주문진을 삼교리에서 1950년 4월 6일, 심상필 집에 침입한 무장공비에게 심상필이 희생되었으며,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은 내무서원이 불려서 나간 후 행방불명이 되는 피해를 입었고, 오세문은 정○○(지방좌익세력)에게 끌려가 1950년 8~9월경 제장계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과 기록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 【결정요지】

1.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 심상필이 대한청년단원이라는 공식적인 문서, 1950년 4월 6일 삼교리 신사동 심상필 집에서 무장공비 2명과 경찰 및 양봉열 외 3인을 포함한 대한청년단원들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교전 중에 심상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이후 이 사건 때문에 삼교리 주민들 중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찾지 못했지만, 참고인 진술과 기록문서 등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전쟁 당시 삼교리 거주자 중 현재 생존자(당시 주문진 및 강릉 경찰서 근무자 6명, 당시 주문진 대한청년단원 3명)와 1954년 건립된 남산(강릉시 소재)의 위령탑 및 1954년 10월에 세워진 위령탑,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와 강릉군순국동지합동위령제의위원회에서 각각 작성한 영위명부(靈位名簿)을 통해서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1950년 4월 6일 삼교리 무장공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현재 생존자(3명 : 당시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었던 현재 주문진 거주자)를 통해서 1950년 4월 5일 삼교리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2명이 침입하여 6일 대한청년단원들과 교전이 있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 심상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이후 1950년 4월 6일 삼교리 무장공비 침입 사건으로 양봉열은 1950년 7월 15일(6.25피살자명부) 내무서(삼교리 본동 소재)에서 불려서 나간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5. 심상열은 정확한 피해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50년 4월 6일 삼교리 무장공비 침입

사건으로 내무서(삼교리 본동 소재)에서 불러서 나간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6. 정계술은 1950년 4월 6일 삼교리 무장공비 침입 사건으로 양봉열과 함께 내무서에 불러 나갔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로 확인하였으며, 『6.25피살자명부』에서도 같은 날(1950년 7월 15일)로 확인되었다.

7. 오세문은 1950년 4월 6일 삼교리 무장공비 침입 사건으로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 지방좌익세력인 정○○에게 끌려가 8월경 제장계(교항리, 현재 주문진중학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참고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8.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공보처통계국, 1954)를 통하여 양봉열(당시 주소 : 주문진읍 삼교리 606), 정계술(당시 주소 : 주문진읍 삼교리 878), 심상열(당시 주소 : 주문진읍 삼교리 613)이 1950년 7월 30일에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납치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오세문의 납치기록은 없었다.

9. 제장계(堤長界)는 현재 교항리에 있는 주문진중학교 자리이며, 그 주변(주문진수산학교 : 주문진중학교 앞에 있는 현재 강원도립대학)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참고인들은 진술하는데, 기록(강우근, 『공산당 잔악행위 현장발굴 및 안보교육장화 연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1989, 56쪽)에서도 주문진수산학교에서 1950년 7월 10일 '대한청년단 체포 총살'로 100여명이 사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본 사건에 참고하였다.

## 【전 문】

**【사 건】** 마-2693 외 4건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신청인】** 양진모, 심상길, 정길환, 오기현, 심광섭

**【결정일】** 2007. 7. 3.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1. 사건 개요

#### 1. 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

양진모, 심상길, 정길환이 2006년 3월 22일에 강릉시청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였으



며, 동년 3월 27일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송되었다. 오기현은 동일 사건의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하였고, 이들 사건 모두 집단희생조사기획관에 배당되어 제19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6년 5월 30일)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되어 동년 6월 5일 신청인들에게 조사개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동년 10월 12일 민족독립조사국 적대세력 조사팀으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심광섭이 2006년 9월 4일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본 사건이 동년 10월 12일 민족독립조사국 적대세력 조사팀으로 이관되어 제22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2007년 1월 23일)에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sup>1)</sup>

## 2. 신청인의 주장

1950년 4월 5일경 삼교리에 위치한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sup>2)</sup> 두 명이 잠입하여 심상필과 심상열을 감금하자 심상열이 탈출하여 대한청년단원인 양봉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경찰(백형운, 홍동문)과 대한청년단원들이 심상필 집에 출동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심상필은 무장공비들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고, 무장공비 한 명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도주하던 중에 정계술을 비롯한 한청단원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인민군들에게 체포되어 삼교리 제장계(堤長界) 솔밭 구덩이에 생매장되었는 바,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sup>3)</sup>

##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이 된다.

신청인들에 따르면 민간인(대한청년단원 포함)이었던 피해자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지방 좌익세력 및 인민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리

1) 일자별 사건 접수 처리 과정.

2) 신청인들이 ‘무장공비’라고 표현하여 이렇게 표기하였으나, 문헌 등에서는 지방좌익(야산대), 남파 유격대(게릴라)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무장공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시 삼교리에 실제로 내려왔던 ‘무장공비’들 중에는 참고인들이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남파 유격대와 동일시하였다.

3) 오세문(제장계)·심상필(삼교리 자택)의 시신은 수습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시신은 부패 등으로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신청인 양진모, 심상길, 정길환, 오기환, 심광섭의 진술조서)

한 사실이 외면을 받아왔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피해자들이 한국전쟁 중 적대세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1945년 8월 15일 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5월 30일 제19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신청사건 4건(마-2693, 마-2694, 마-2695, 마-2726)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2007년 1월 23일 제22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신청사건 1건(마-5041)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III. 진실규명 과제

한국전쟁 중 주문진에서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 심상필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배경으로 주장되는 사건의 실재여부

사건의 실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일차적으로 사건 피해 원인이 되는 사건의 실재 여부이다. 즉, 1950년 4월 5일경, 주문진을 삼교리(신사동)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두 명이 잠입하여 경찰 및 대한청년단원들과 무장공비 사이에 교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현장에서 1950년 4월 5일경 심상필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 사건 배경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청인들이 피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전쟁 이전 무장공비 사살 및 체포 사건과 그 이후 적대세력의 보복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들의 우익활동 과정에서 행한 행위와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3. 피해 시기 및 가해 주체

신청인들은 양봉열과 정계술이 8월 16일(음력 7월 3일), 심상열이 8월 6일(음력 6월 23



일), 오세문이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에 피해자들이 인민군들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시기 및 가해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민군과 치안부대의 강릉 및 주문진 지역 입성 시점과 남한군 수복시점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방 좌익세력의 활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진술과 더불어 문헌자료를 통한 확인과정이 요구된다.

#### 4. 피해 장소 및 희생 규모

‘제장계’ 솔밭 구덩이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 장소의 확인 및 확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신청사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전체 희생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IV. 조사 방향 및 방법

#### 1. 조사 방향 및 원칙

##### 가. 조사 방향

본 사건의 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기록문서를 확인하여 진실규명 과제인 신청인주장에 따른 피해 배경의 원인 사건의 실재여부, 사건배경, 피해시기 및 가해주체, 피해장소 및 희생규모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사하였다.

##### 나. 조사 원칙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원칙 아래 조사하였다.

첫째, 사건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를 찾아 진실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출하는 문서 중 작성 시기가 전쟁 직후의 것은 그 자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것은 유가족들이 시기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기 위한 심리적 여유와 이유를 가질 수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인 보다 참고인 진술을 우선시 하고, 또한 참고인의 경우에 신청인 직계 유가족의 진술 보다는 제3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였다. 이는 모두 본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참고인의 진술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진술을 문서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때는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관공서들이 불에 탔을 뿐 아니라, 또

는 문서 이관 작업 중 소실된 문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 조사 방법

### 가. 문헌자료 조사

인민군 조직 형성배경, 조직 구조 및 특징, 군사정책에 관한 연구 논저와 한국전쟁 당시 강릉·주문진 지역의 배경 및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 등에 관한 연구 논저를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 전문학술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sup>4)</sup>

문헌 자료는 국내의 경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북한대학교대학원,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명부』(1952년) 작성 근거 및 국내외에 소장된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관련 내용, 1945~1953년 사이의 『조선일보』와 1950년의 『로동신문』, 군사관련 북한 문헌 등을 인터넷 검색, 전화통화,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해외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문헌은 미국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 자료 중에서 전쟁 포로 진술서를 통하여 한국전쟁 기간(1950~1951년) 동안에 강릉·주문진에서 이루어진 내무서원 혹은 인민군 등의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sup>5)</sup>

그리고 강릉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강릉시청 등을 방문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근무자들의 기록이나 한국전쟁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 나. 전문가 면담

제출된 첨부서류의 신빙성 여부 및 신청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전문가, 한국전쟁 피납치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한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sup>6)</sup>

4) 한국전쟁 관련하여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단행본(76편), 국내학술지(78편), 학위논문(80편), 해외소재 한국관련자료(59편), 세미나 자료(5건)를 검색하였으며, 북한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통일부 자료센터에서는 29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73건을 검색하였다.

5) NARA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RG 153의 KWC #337A, #1493에서 주문진 지역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본 사건과 관련이 없었으며, 기타 KWC #5, #93, #119, #120, #121, #156, #170, #348, #433, #502, #508, #517, #580, #606, #968도 확인하였지만, 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6) 전문가 면담 내용 요약.



#### 다.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sup>7)</sup>

신청인 조사는 2006년 11~12월 사이에 강원도 강릉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이루어졌으며, 2007년 5월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 진술을 통하여 참고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1950년 4월 5일 주문진읍 삼교리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가 침입했는지 여부, 그 당시 심상필이 희생되었지의 사실 여부, 전쟁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다.

참고인 조사는 신청인 조사를 기반으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참고인 선정은 신청인을 통해서 알게 된 참고인, 1950년 당시 주문진읍 삼교리에 거주했었던 참고인,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알게 된 참고인, 현재 주문리와 교항리 거주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나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사람들이었다.

#### 라. 현장 조사

피해자들이 살았던 주거지역을 확인하여 그 주변환경을 살펴보고, 제장계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진술에 따라 피해 현장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건 현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들의 위령탑 등이 세워진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명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 V. 조사 결과

### 1. 주문진의 지역적 배경<sup>8)</sup>

#### 가. 주문진의 지리적 위치

강릉은 양양, 주문진, 강릉, 삼척으로 이어지는 단일 해안 접근로상에서 대관령을 통하여 중부 내륙과 연결되는 도로와 교차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군사 목적상 매우 중요하며, 현재 주문진읍,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문진읍은 주문리(12개리), 교항리(14개리), 장덕리(2개리), 향호리(2개리), 삼교리(1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삼교리는 주문진읍에서 북한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주변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sup>9)</sup>

7) 조사경과.

8) 사건의 배경에 해당하는 인민유격대 활동, 남로당의 지하공격활동에 대한 신문목록.

### 나. 8·15광복 이후 주문진의 좌·우익

강원도에서 국민회는 김우종을 중심으로 반탁 강원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46년 초기 국민회 강원도 지부 중 강릉의 중심인물은 심상준·최격연이었고, 주문진은 최현길이 중심인물이었다. 그리고 좌익세력의 경우 국민회에 맞서 1946년 2월에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강원도위원회를 조직하여 도내 공산주의자들을 규합, 조직의 일원화를 기하는 동시에 리단위까지 세포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sup>10)</sup>

주문진의 경우, 이 시기 우익청년단체들은 광복청년회(자치군 중대장 석종문)가 있었으며, 과거 일본군 출신 한국군들이 지방자치군 1개 중대를 편성하여 중대장 석종문과 김만출, 김봉식, 유성옥 등이 활동하였다.<sup>11)</sup>

### 다. 주문진에서 한국전쟁 전개<sup>12)</sup>

강릉지역에는 인민군으로 편성된 766부대(부대장 : 吳振宇 총좌)와 549부대<sup>13)</sup> 육전대의 혼성부대가 강릉군(당시 명주군) 옥계면 정동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상륙하였다.<sup>14)</sup> 인민군은 6월 25일 오전 10시 주문진 북서방 지역(시변리)을 점령하였고,<sup>15)</sup> 6월 28일 저녁 8시 무렵 강릉을 완전 점령하였다.<sup>16)</sup> 강원 동해안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서 706 치안여단 제 108연대가 강릉에 본부를 두었으며, 대대는 강릉, 옥계, 삼척, 주문진에 두었다.<sup>17)</sup>

1950년 9월 30일 강릉이 수복되고, 10월 1일 주문진이 수복될 때까지 강릉과 주문진은 인민공화국 통치 아래에 놓여있었으며, 수복 직전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이루어졌다.<sup>18)</sup>

- 
- 9)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삼교리에 거주했었던 사람들이다.
- 10)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강원도, 1995, 71~72쪽 ; 인민유격대 활동 및 남노당의 지하공격 활동에 대한 신문 목록 등은 사건의 배경.
- 11)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73~74쪽.
- 12) 강릉지역에서 한국전쟁 전개 상황.
- 13)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장 심재기 면담(’06.11.7)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침략과 초기방어 전쟁』(2005)에서 확인한 바, 북한의 945부대가 러시아에서는 549부대로 표기되어 북한의 945부대와 러시아에서 말하는 북한의 549부대가 같은 부대이다.
- 14)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93쪽.
- 15) 동해안을 따라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연합부대는 괴뢰군 8사 10련대를 소멸하고 25일 주문진을 해방함으로써 강릉일대에서 해상륙전대와의 협동동작 밑에 적을 소멸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원문인용) :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83, 141쪽.
- 16) 1950년 6월 26일 발표된 전황뉴스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독립 작전을 하고 있는 연합부대(제5사단을 말함)는 주문진을 점령하고 강릉을 향하여 진격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고려원, 1991, 278~279쪽.
- 17) 이후 전선이 낙동강으로 남하한 후 강원도 내에서는 전투가 더 이상 없었다;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99쪽.
- 18) 이는 RG153, KWC#170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배경으로 주장되는 사건의 실재여부

1950년 4월 5일, 주문진읍 삼교리(신사동)에서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침입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희생사건이 있었는지를 참고인 면담과 『로동신문』·『조선일보』 등을 통하여 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본 사건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 명부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 외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흥동문, 백형운 경찰의 한국전쟁 이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가. 참고인 조사

참고인은 본 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4명), 양봉열 등과 함께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던 사람(2명), 당시 주문진 거주자(5명), 당시 강릉·주문진 경찰서 근무자(6명)로 한정하였다.

#### 1) 1950년 4월 5일 삼교리에 무장공비의 침입사실 여부

삼교리는 한국전쟁 전에 마을청년들이 ‘야경’이라고 해서 밤에 공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시하여 순찰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수상하게 여길 정도로 북한에서 공비들이 자주 내려오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sup>19)</sup>

강흥규, 양봉열과 함께 근무를 했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sup>20)</sup> 1950년 4월 5일 삼교리 신사동 세절골이라 불리우는 산골에 위치했던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두 명이 침입하자 다음날(음력 2월 19일) 새벽, 이 사실을 양봉열이 전해 듣고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한청단원들 10여명이 심상필의 집에 출동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들과 무장공비 사이 교전 중에 심상필은 무장공비의 인질로 붙잡혀 있다가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하였으며, 무장공비 한명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다른 한명을 생포하였다고 하는데,<sup>21)</sup> 무장공비 2명은 모두 삼교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19) 2006년 12월 7일, 삼교리 신사동 자택에서 참고인 최○○ 진술; 2006년 11월 7일, 강릉시 포남2동사무소에서 장○○의 진술에 따르면, 삼교리 수교동에서 1947~48년 경, 면담자의 형이 사촌집에 놀러갔다가 무장공비가 쏜 총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일이 있다고 했다; 2006년 12월 7일, 삼교리 수교동에서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에 삼교리 수교동에 무장공비가 많이 출몰하여 대한청년단원들이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마을 치안유지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20) 2006년 11월 8일,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참고인 심○○ 진술.

21) 2006년 12월 7일, 삼교리 신사동에서 참고인 최○○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참고인이 심상열의 피해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가 침입하였다는 사실과 양봉열이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신청인 및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2007년 5월 28일, 참고인 심○○를 통해 심상필이 피해를 당하고 이후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는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 홍동문, 백형운의 전전·후(戰前後) 행적

당시 삼교리의 무장공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주문진 경찰서 소속의 홍동문, 백형운 경찰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국전쟁 이전·후의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다만, 현재 삼교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막국수 집 건너편이 경찰서였고,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내무서로 사용하였으며, 전쟁이 나기 전에 그곳에 근무했던 순경 2명 중 한명은 백형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2)</sup>

3) 피해자들의 대한청년단 활동 사실 여부 확인<sup>23)</sup>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은 모두 대한청년단원 활동을 하였으며, 오세문은 삼교리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다는 것 역시 참고인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문헌자료 조사

신문자료, 국가기록문서, 참고인들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참고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문서는 작성 시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휴전 직후인 1954년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령탑(강릉시 남산 소재) 건립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건의 중요한 문헌자료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헌자료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대한청년단 활동을 인정하기 보다는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참고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한다.

1) 1950년 4월 5일에 삼교리에 무장공비의 침입사실 여부<sup>24)</sup>

『로동신문』(1950년 3~8월), 『조선일보』(1950년 4~5월)를 검색하여 확인한 바, 본 사건(1950년 4월 5일, 주문진에 공비 침입)이 기재되어 있는 기사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들이 강릉·주문진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5)</sup>

22) 당시 삼교리 거주자였던 최○○(38년생)의 진술.

23) 이○○(36년생)의 진술 중 정계술이 당시 20년 넘게 반장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은 1924년 생으로 당시 27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맞지 않지만, 강홍규 등의 대한청년단 활동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 진술과 일치하므로 그의 진술을 모두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4) 「로동신문」 관련 기사 목록.

25) 1948년 제주도를 비롯한 호남 및 영남 일부지역에서 남로당의 '폭력과 비폭력의 배합전술'을 넘어선 무장투쟁이라는 유일한 전술로 넘어감에 따라 몇 개의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는데, 호남유격전구, 지리산유격전구, 태백산유격전구, 영남유격전구, 제주도 유격전구가 그것이다. 태백산유격전구는 강릉, 삼척을 중심으로 하여 5·10선거를 반대한 좌익계가 경찰지서 습격 등 만행으로 추적을 받게 되자 무기를 약탈하여 입산함으로써 형성된 유격전구였다. 북으로는 오대산과 연결된 매봉산, 계방산, 그리고



## 2) 홍동문, 백형운의 전전·후(戰前後) 행적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지방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 홍동문과 백형운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지만, 당시 강릉경찰서 지서가 주문진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sup>26)</sup>

## 3) 피해자들의 대한청년단 활동 사실 여부 확인

대한청년단<sup>27)</sup> 활동 사실은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韓靑殉國同志慰靈塔保存委員會, '영위명부 1')와 강릉군순국동지합동위령제의위원회(江陵郡殉國同志合同慰靈祭儀委員會, '영위명부 2')에서 작성한 「영위명부」(「靈位名簿」)를 분석하여 조사했다.<sup>28)</sup>

'영위명부 1'은 222명이 강릉시, 묵호읍, 주문진 등 16개 강릉지역으로 나뉘어 피해자명·대한청년단에서의 계급·유가족명·유가족 주소·피해사유에 대해서 기입되어 있었는데, 본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 주소는 모두 주문진을 삼교리로 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대한청년단에서의 계급은 양봉열(梁鳳烈)은 감찰계장, 심상열(沈相烈)은 조직계장으로, 오세문(吳世文)은 동(洞)부단장, 정계술(鄭桂述)은 훈계계장으로 기입되어 있다.

반면, '영위명부 2'에는 263명의 피해자가 읍단위로 성명·나이·직업·주소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양봉열(梁鳳烈, 32세, 韓靑區監察係長), 심상열(沈相烈, 30세, 韓靑區宣傳係長), 오세문(吳世文, 31세, 韓靑區副團長), 정계술(鄭桂述, 33세, 韓靑里團部訓練係長)이 모두 피살되었으며, 이들이 강릉군 주문진을 삼교리에 거주했었던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영위명부 1'과 '영위명부 2'를 비교해 보면, 심상열이 대한청년단 조직 내에서 조직계장과 구선전계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점만을 제외하고, 두 명부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대한청년단원이었으며<sup>29)</sup>, 한국전쟁 중에 희생당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으로 소백산, 국망봉 등을 거점으로 주변의 강릉, 삼척, 정선, 평창, 영월, 횡성, 홍천 등을 포함한 진구였다. : 김남식, 『남도당 연구』, 돌베개, 1984, 394~395쪽 참고.

26) 강릉시사편찬위원회, 『강릉시사(上)』, 강릉문화원, 1996, 438쪽.

27) 이승만 대통령의 통합 단일화 명령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하고 통일적인 우익청년단체를 조직하여 호국군 편성을 촉진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국토와 국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1948년 12월 21일 대한청년단(한청)이 설립되었다. 한청은 200여만 명의 정규단원과 전면촌촌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지방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국군과 경찰을 도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1949년에는 군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숙군(肅軍)작업이 본격화되자 38선 일대에서 한청단원들이 참가한 전투가 자주 발생하였다; 김행선,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2004, 513쪽.

28) 출처가 다른 '영위명부'가 두 개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영위명부 1'이라고 하고, 강릉군순국동지합동위령제의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영위명부 2'라고 하였다.

29) 강릉의 단부(團部)에서는 정주교, 조건목, 김진백 청년단장들이 활동하였으며, 1949년 4월 6일 주문진 대한청년단장 특별단부 결성식이 주문진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강원일보」, 1949년 4월 15일.

#### 다. 소결

1950년 4월 6일 경, 삼교리 세절골 형제봉 아래에 위치해 있었던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두 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심상열에게 전해 들은 양봉열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한청단원들 10여명이 심상필의 집에 출동했는데, 이후 그 자리에서 무장공비에게 인질로 잡혀 있던 심상필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대한청년단)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희생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진술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참고인과 관련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첫째, 1950년 4월 5일, 삼교리에 무장공비 2명이 침입하여 양봉열 등과 교전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사이 무장공비의 인질이었던 심상필이 희생되었는가.

당시 주문진에 거주했던 참고인들이 해방 이후 주문진의 삼교리에는 무장공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진술하며, 『로동신문』 등에서도 강릉·주문진 지역에 유격대를 내려 보내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0년 4월 5일에 심상필 집(삼교리)에 무장공비 2명이 침입하였으며, 다음날 새벽에 무장공비에게 심상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주문진 경찰서 소속의 홍동문과 백형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참고인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에 삼교리에서 홍동문과 백형운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 진술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지방경찰청에 1950년경 이들이 주문진 경찰서 삼교리 임시파출소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재직여부 및 재직하였다면 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지방청 비치 인사사령부 등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셋째, 피해자들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었는가.

참고인들의 진술과 영위명부에 따르면, 당시 삼교리에는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외에 강홍규, 심대섭 등도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오세문은 삼교리의 반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청년단장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희생된 이후에 한청대장은 심춘섭, 훈련대장은 김철영, 삼산지역 청년대장·한청단장은 김대섭, 삼교리 청년대장·한청단장은 심대섭이었다고 한다.



### 3. 사건 배경 확인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1950년 4월 5일 삼교리의 심상필 집에서 있었던 무장공비 사살 및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끌려가서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신청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삼교리에 거주했던 참고인들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문진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다른 신청인 및 참고인들을 통하여 당시 주로 피해를 당한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1952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가 작성한 「영위명부」, 강릉군순국동지합동위령제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영위명부」에서 피해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가. 참고인 조사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하였다는 참고인과 당시 삼교리에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sup>30)</sup>, 심상필 집에 무장공비 2명이 1950년 4월 5일에 침입하여, 다음날 새벽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과 침입한 무장공비들 사이에 교전이 있었는데, 무장공비 한 명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다른 한 명은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전쟁 이후에 희생되었다고 한다.<sup>31)</sup>

#### 나. 문헌자료 조사

1952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가 작성한 「영위명부」, 강릉군순국동지합동위령제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영위명부」에는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소결

해방이 되고 삼교리의 마을 치안유지를 위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1950년 4월 6일, 삼교리 심상필집에서 무장공비와 교전을 벌였던 것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희생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진술은 당시 함께 대한청년단 활동을

30) 심○○ 참고인 진술조서; 강릉2차 출장보고서.

31) 주문진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신청 사건에 대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주문진에서 한국전쟁 이전 무장공비를 신고하여 희생을 당한 장금출과 같은 다른 피해자가 있으며, 이 피해자는 대한청년단 활동을 알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한 심경섭, 김노영, 심상욱, 최용모, 장용진 등과 같은 피해자들도 있으며, 이 두 사항에 모두 속하는 장종원과 같은 피해자도 있었다. 심상필의 사건희생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서 심상필과 양진모는 친구였으며, 심상열은 형제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심상열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강○○ 참고인 진술조서)

하였던 참고인들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들의 피해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 그들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1950년 4월 6일 공비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것은 참고인 진술만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영위명부」 등의 문서를 통하여 확인한 대한청년단원 활동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들이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청년단원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우익활동가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좌익세력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전쟁 전에 무장공비를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희생을 당한 삼교리 거주자도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은 1950년 4월 6일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전쟁 이후에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다는 것은 피해이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피해시기 및 가해주체 확인

양봉열과 정계술은 8월 16일(음력 7월 3일), 심상열은 8월 6일(음력 6월 23일), 오세문은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에 각각 인민군들과 지방좌익세력들에 의해 체포되어 갔다고 신청인들이 주장했으므로, 이를 인민군의 강릉·주문진 입성시기를 고려하면서 참고인 면담과 문헌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 가. 참고인 조사

참고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7월말~8월초경에 내무서(삼교리 본동에 위치)에서 신문을 당하다가 국군이 복진하자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9월말경에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으며,<sup>32)</sup>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에 오세문이 정○○에게 끌려갔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sup>33)</sup>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정확히 누구에 의해 언제 끌려갔으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정○○(삼교리 수교동), 김○○·김○○(삼교리 본동), 김○○(삼교리 인민위원장), 김○○(삼교리 행능동), 최○○, 김○○, 박○○이 지방 좌익세력으로 활동을 했으며, 김○○은 이후 월북하였다는 진술만을 확보하였다.<sup>34)</sup>

32) 심○○ 참고인 진술조서.

33) 오○○의 신청인 진술조서; 오○○의 참고인 진술조서; 강릉2차 출장보고서.

34) 정○○, 김○○, 김○○, 박○○에 대한 제적등본을 주문진읍사무소에 협조요청 한 결과, 정○○(鄭○○)은 1917년생으로



## 나. 문헌자료 조사

피해자들의 피해시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1952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이다. 이 명부에는 1950년 7월 15일에 양봉열과 정계술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세문과 심상열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한청순군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가 작성한 『영위명부』가 있다. 이 명부에서는 양봉열, 정계술, 오세문, 심상열이 모두 1950년 음력 6월 23일(양력 8월 6일)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54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이다. 이 명부에서는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1950년 7월 30일에 각자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납치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오세문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끌려갔는지는 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강릉내무서 감찰계장이었던 유만호(劉萬鎬)가 1950년 10월에 체포되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강릉내무서장 강치옥(姜治玉), 부서장 변창선(邊昌善), 총무계장 박성찬(朴成贊), 기요(機要)계장 양응조(梁應祚), 서무계장 차봉관(車鳳官), 감찰부계장 유복준이었으며, 유만호의 지시에 따라 구금자 40명 중 잡범에 속하는 21명은 1950년 9월 21일 석방하고, 남한의 정치범 19명(양봉열, 정계술, 심상열, 오세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음)은 내무서로부터 차로 40분(강릉에서 북쪽 1Km 방향) 정도 걸리는 곳에 구덩이(폭 1미터, 길이 15미터, 깊이 1미터)를 파서 총살했다고 한다.<sup>35)</sup>

1977년에 명주군 주문진읍 ○○○에서 그의 아들이 사망신고를 했으며, 김○○의 제적등본은 입수하지 못했고, 김○○(金○○)은 1909년 생으로 1952년 명주군 주문진읍 ○○○에서 부인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망이유와 인민위원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박○○(朴○○)은 1911년생으로 1968년에 명주군 주문진읍 ○○○에서 아들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김○○(金○○, 43세, 1950년 10월 8일 월북, 保聯)와 김○○(金○○, 48세, 농업, 1950년 9월 27일 월북, 勞動黨)이 1951년 공보처통계국에서 작성한 「월북자 명단」에서 월북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김○○의 월북 기록은 신청인 진술(2006년 11월 7일)과 일치한다(월북자명단). 또한 김○○가 양양청년동맹(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3일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검색하였는데, 나이와 비슷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동일인물일 확률은 높지만 확증은 없다 : 「중외일보」, 1930년 5월 1일 ; 「중외일보」, 1930년 5월 11일 ; 「중외일보」, 1930년 5월 28일.

35) RG 153, Headquarters Korean Communication Zone,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War Crimes Division, APO 234, KWC #170 : 유만호는 평양 군사동원부 명령에 따라 1950년 8월 27일 평양제2정치군관학교에 입학하여 15일간 교육을 받아 강릉내무서로 배치를 받고, 1950년 9월 19일에 강릉내무서에 도착하여 黃 감찰계장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한다. 다음날(20일) 간부회의에서 울진에 UN군이 상륙했으므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22~23일에 양양군 내무서로 후퇴집합할 것, 문건서류 일체에 대해서 소각할 것, 양식·동복을 준비하고 하복을 내무서원들에게 배급할 것, 구금자들 중 잡범(21명)은 석방하고 남한정치범(19명)은 총살할 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다. 따라서 명령에 따라 유만호는 집행하고 양양에 23일 도착하고, 24일 원산 내무서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1950년 10월 5일 원산 내무서로 이동하는 중에 유만호는 체포되어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 주문진이 수복될 때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책임지고자 706 치안여단 제 108연대가 강릉에 본부를 두었으며, 대대는 강릉·옥계·삼척·주문진에 두었다.<sup>36)</sup>

#### 다. 소결

신청인들은 피해자들이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 : 오세문), 8월 6일(음력 6월 23일 : 정계술), 8월 16일(음력 7월 3일 : 양봉열)에 끌려갔으며, 피해자 심상열은 언제 끌려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1950년 6월 27일, 주문진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어 10월 1일 수복되었는데,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양력 7~8월 말경에 피해자 오세문, 정계술, 양봉열, 심상열이 끌려갔다가 인민군이 퇴각하기 직전인 9월 말 경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오세문의 경우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에 체포되어 가서 여름에 제장계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신청인의 피해시기 진술은 문서에서 확인되는 주문진의 인민군 입성시기와 후퇴시기 동안에 해당이 되며, 참고인 진술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2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와 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가 작성한 『영위명부』를 분석해 볼 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날짜가 제장계에서 8월 6일(음력 6월 23일 : 『영위명부』), 양봉열·정계술이 삼교리에서 양력 1950년 7월 15일(『6.25사변 피살자명부』)로 신청인들의 진술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세문의 경우는 신청인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체포된 날짜가 7월 8일(음력 5월 23일)로 일치한다.

또한 인민군들이 삼교리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전의 무장공비 사건으로(1950년 4월 6일) 인해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의용군 입대를 지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희생을 당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들의 피해가 인민군이 입성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문서들에서 확인되는 피해날짜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피해시기로서 가능한 날짜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체포되어 간 피해날짜와 제장계에서 희생됐다는 희생날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내무서가 삼교리 본동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내무서에서 호출하여 몇 번 다녀왔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교항리에 있는 제장계에서 희생되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삼교리 본동에 감금되어 취조 받은 이후에 제장계 출발에서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릉 내무서로 보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으므로 내무서(본동 소재)에 감금되어 있다가 강릉 내무서로 이송된 이후에 제장계 출발에서 희

36) 이후 전선이 낙동강으로 남하한 후 강원도 내에서는 전투가 더 이상 없었다;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현대편』, 99쪽.



생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1954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에서는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1950년 7월 30일에 납치되었고, 오세문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의 정확한 피해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참고인과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한 바, 피해자들은 인민군들이 주문진에 들어온 1950년 6월 26일 이후인 1950년 7~8월 사이에 삼교리에서 체포되어 1950년 8~9월 사이에 제장계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판단된다.<sup>37)</sup>

내무서는 삼교리 본동에 있었으며, 강릉내무서로 이송되었다는 참고인 진술에 따라 당시 강릉내무서원들을 살펴보면, 강릉내무서장 강치옥(姜治玉), 부서장 변창선(辺昌善), 총무계장 박성찬(朴成贊), 기요(機要)계장 양응조(梁應祚), 서무계장 차봉관(車鳳官), 감찰계장 유만호(劉萬鎬), 감찰부계장 유복준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9월 20일에 강릉에서 양양내무서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21일까지 강릉에 주둔해 있었다.

또한 신청인들은 인민군들과 지방 좌익세력들이 함께 피해자들을 체포하러 왔다고 진술했는데, 먼저 당시 강릉에는 인민군 766부대와 549부대가 1950년 6월 25일 상륙하여 제5사단 제1여단이 주문진으로 들어왔고, 706 치안여단 108연대가 강릉에 본부를 두고 주문진에 대대를 두었다. ‘이주춘 중대’, ‘장병호 소대’, ‘신경옥 분대’, ‘강수옥 전사’, ‘김기표 분대장’, ‘박승호 대원’, ‘김영도 분대’ 등도 관련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청인·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언급된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체포해 갔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사살했다는 확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강릉내무서로 피해자가 이송되었다는 신청인 진술조서와 앞에서 확인했던 피해시기(9월경)와 피해장소(제장계 구덩이)가 강릉내무서원들의 후퇴명령에 따른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강릉내무서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피해 장소 및 희생 규모

본 사건에 대해서 전해들은 참고인들은 당시 삼교리에 함께 거주했던 참고인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분되며, 피해장소라고 지목한 현장을 찾아갔고,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위령비가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 가. 참고인 조사

37) [표] 신청인·참고인 진술 및 문헌자료상의 피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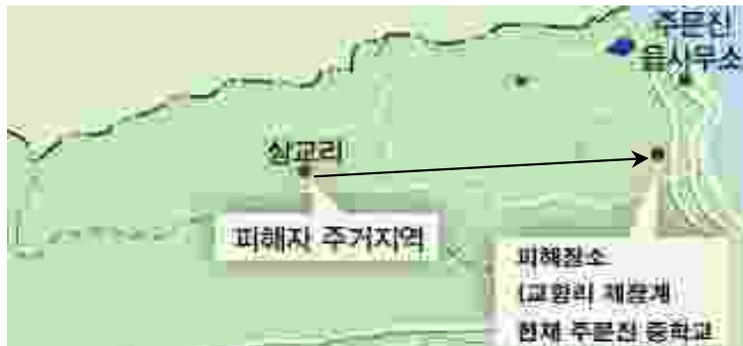
참고인들은 대부분 '제장계'에서 구덩이에 묻혀서 피해자들이 죽었으며, 이들 이외에 삼교리에서 7~10여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sup>38)</sup>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고, 오세문과 최동길의 시신은 찾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오세문의 경우에는 시신이 많이 부패 되었지만 일본 보국대 허리띠를 보고서 시신을 찾아 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sup>39)</sup>

#### 나. 문헌자료 조사

한국전쟁 초 인민군에 의한 지역별 민간인 학살 사례 중 강원도 지역에서 1950년 7월 10일 주문진읍 수산고등학교<sup>40)</sup>에서 대한청년단 체포 총살로 100여명 피살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sup>41)</sup>

#### 다. 현장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이 진술한 '제장계'는 현재의 교항리로, 피해자의 주거지역에서 피해장소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교리 피해자들 주거지역에서 교항리 제장계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그림 1〉 피해 장소

38) 심○○ 참고인 진술조서; 오○○ 참고인 진술조서.

39) 강릉2차 출장보고서 중 이○○ 참고인 진술조서; 오○○ 참고인 진술조서; 오○○ 신청인 진술조서.

40) 당시 주문진수산학교(1947~1998년)는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산 273-1번지에 위치했으며, 1950년 4월 1일 주문진 수산중학교(6년제)로 인가를 받았는데, 6월 25일에 전쟁으로 인하여 제1차 휴교가 있었고, 10월 1일에 수복되어 수업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12월 17일 국군 후퇴작전으로 인하여 제2차 임시 휴교가 있었으며, 1951년 7월 2일 제2차 휴교해제로 수업이 개시되었다.(주문진수산학교연혁)

41) 김행복, 「인민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6.25전쟁 50주년 기념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16쪽.



제장계(堤長界)는 현재의 강릉도립대학(前 주문진수산학교)을 중심으로 차로 사방 5분 정도의 거리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후 공동묘지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주문진중학교 등의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오세문과 함께 현재의 주문진중학교(현재 강릉도립대학 뒤에 위치) 자리에서 희생되었을 것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이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세문의 시신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954년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한청순국동지위령탑보존위원회)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대한청년단원들을 기억하고자 남산(강릉시 소재)에 세운 위령탑에서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 라. 소결

피해장소가 '제장계'라고 참고인이 진술한 곳은 현재의 교항리였다. 교항리는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동해안에 근접해 있는 곳이다. 소나무가 뺨뺨하게 들어서 있으며, 현재 강원도립대, 강릉정보고등학교, 주문진 중·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예전 주문진 수산고등학교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오세문의 시신을 발견한 곳은 지금의 주문진중학교 운동장이었다.

현재 제장계 솔밭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제장계의 올바른 표현이나 뜻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희생된 동일사건이 '대한청년단 체포 총살'로 100여명이 주문진을 수산고등학교에서 죽었다는 민간인 학살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1954년 당시 생존해 있던 대한청년단원들이 희생된 대한청년단원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강릉시 소재 남산에 대한청년단 활동으로 한국전쟁 중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위령탑을 설립하였는데, 신청인들이 제시한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의 이름을 확인했다.

## VI. 결론 및 권고사항

### 1. 결론

피해자 양봉열('18.1.17.生, 당시 33세), 심상열('22.3.4.生, 당시 29세), 정계술('24.6.23.生, 당시 27세), 오세문('22.9.5.生, 당시 29세)이 1950년 4월 5일에 삼교리의 심상필 집에 잠입한 무장공비 2명과 다음날 새벽에 교전을 치루어, 현장에서 심상필은 사망하고 무장공비 중 한 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양봉열과 정계술이 1950년 8월 16일(음력 7월 3일), 심상열이 1950년 8월 6일(음력 6월 23일), 오세문이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에 인민군과 지방좌익세력들에 의해 삼교리 자택에서 끌려가거나 내무서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제장계' 솔밭 구덩이에서 희생당했다는 본 사건은 참고인들과 관련문서로 확인한 결과,

첫째, 1950년 4월 6일(음력 2월 19일) 새벽, 삼교리 신사동의 심상필 집(삼형제봉 아래 세 절골이라는 곳에 위치)에 무장공비 2명이 침입하여 피해자들과 교전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현장에서 심상필이 무장공비에게 희생되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로 인하여 오세문이 희생되었고,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을 당시 대한청년단원 참고인과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열은 무장공비가 침입한 심상필 집에 함께 있다가 이 사실을 양봉열에게 알렸고, 양봉열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무장공비 2명과 경찰·대한청년단원들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이때 무장공비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심상필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으며, 정계술은 교전 중 도주하는 무장공비를 체포하였고, 오세문은 당시 대한청년단장이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들 외에 참고인들은 그 현장에는 강홍규, 심대섭 등의 대한청년단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들은 1950년 7~8월 사이에 삼교리에서 체포되어 1950년 8~9월 사이에 제장계에서 희생을 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봉열과 정계술의 피해날짜는 참고인 진술과 공식문서(『6.25피살자명부』: 7월 15일) 사이에 약 한달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날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일치하며, 오세문은 참고인과 신청인의 진술이 7월 8일(음력 5월 23일)로 일치하고, 심상열은 정확한 피해날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1954년 공보처통계국에서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에서는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이 1950년 7월 30일에 각자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납치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오세문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제장계'가 교항리 일대이며, 특히 본 사건의 피해지역은 주문진중학교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세문의 허리띠를 보고서 그의 시신만을 찾았으며, 양봉열·정계술·심상열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신청인·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1950년 6월 25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주둔하거나 지나갔을 좌익세력은 인민군(766부대, 549부대, 제5사단 제1여단, 706 치안여단 108연대, '이주춘 중대', '장병호 소대', '신경욱 분대', '강수옥 전사', '김기표 분대장', '박승호 대원', '김영도 분대'), 내무서원(강릉내무서원: 강치옥, 변창선, 박성찬, 양응조, 차봉관, 유만호, 유복준), 지방좌익세력(김○○, 박○○, 정○○, 김○○, 정○○, 김○○, 김○○, 김○○)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해 갔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사살했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오세문은 정○○에게 끌려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강릉내무서로 피해자가 이송되었다는 신청인 진술조서와 앞에서 확인했던 피해시기(9월 경)와 피해장소(제장계 구덩이)가 강릉내무서원들의 후퇴명령에 따른 정책과 일치하므로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이 강릉내무서원들의 지시에 따라 희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주문진에서 1950년 4월 6일 삼교리 심상필 집에 침입한 무장공비에 의해 심상필이 자택에서 희생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양봉열과 정계술은 같은 날(7월 15일), 심상열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주문진 삼교리 자택에서 본동에 있던 내무서에 다녀온다고 나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오세문은 같은 해 7월 8일 삼교리 자택에서 정○○에게 끌려가서 '제장계'라고 불리는 곳에서 8월 경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양봉열, 정계술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피살자명부』와 참고인 진술, 심상열, 오세문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1954년 당시 생존해 있던 대한청년단원들이 한국전쟁 때 희생된 대한청년단원들을 기억하고자 강릉시 소재 남산에 위령탑을 세웠고, 피해자 양봉열, 심상열, 정계술, 오세문의 이름 역시 확인하였다.

## 2. 권고사항

### 가. 위령사업

한국전쟁 당시 좌익세력들에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강릉시 남산(1954년 10월 한청순국동지위령탑건립위원회 주최로 위령탑 건립)에서 자체적으로 모여 위령제를 1년에 한 번 씩 지내는 것을 제외하고, 강릉시청 등에서 지원하는 위령사업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또한

사건 발생지역인 제장계(현재 주문진중학교)에도 한국전쟁 당시 피해지역으로 사건에 대한 개요 등이 적혀 있는 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릉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홍보 차원에서 위령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유가족들이 건립한 위령탑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 제장계(現 교항리 소재의 주문진중학교)에 인민군 및 지방좌익세력들에 의하여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안내판을 설립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나. 역사기록의 등재

강릉시청·강릉경찰서·강릉보훈지청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관련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기록을 강릉역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보관하여 암울했던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